직장 계속 다니면서 하는 이직

(역대상 23:1~32)

28.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29.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제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30.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31.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32.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직장 계속 다니면서 하는 이직>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직장 계속 다니면서 하는 이직'
'이직'이란 직장을 옮기거나 직업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 중심으로 우리의 이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로 합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 중소기업이 휘청거리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망하고 청년실업은 계속 증가하면서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자 취직이 안 되는 청년들은 결혼을 기피하고 자녀 낳기도 원치를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새마을 운동을 하며 잘 살아 보세를 외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이제는 이러한 방식의 나라 운영과 경제체제 자체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백두산같이 단단해 보였던 삼성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내외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업도 심하게 휘청대다가 겨우 몇 대의 배를 수주했다고 합니다.
첨단산업의 발전 속도가 점점 떨어져서 중국에는 추격을 받고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과의 격차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력 산업으로 여겼던 것들은 쫓아오는 나라들에 의해서 하나씩 잠식당하기 시작했고 정치는 말 할 것도 없습니다.
젊은이들도 이제는 중소기업에 취직하려는 사람이 없고 전부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되기만을 바라는데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 취직과

이직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계시는 하늘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장갑이 되어 살아간다면 취직과 이직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취직이 어렵지만 이렇게 어려운 취직을 한 젊은이들 중에 27%는 1년 안에 사표를 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업구조가 회장 한 사람을 위한 노예 살이 때문입니다.
회사를 정원에 비유해봅니다. 정원에는 큰 꽃을 피우는 꽃도 있고, 작은 꽃들도 있어서 각자가 꽃을 피우며 정원을 만듭니다. 그런데 기업이라는 정원은 '나'라는 작은 꽃을 피울 수 있는 현장이 아닙니다. 오직 꽃은 회장님이라는 큰 꽃 한 송이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그 꽃을 피우기 위한 뿌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직에 타잔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타잔이 밀림에서 이동을 할 때에 나무넝쿨을 붙잡고 소리치며 움직입니다. 이때에 왼손으로 넝쿨을 잡았다면 반드시 오른손으로 다른 넝쿨을 잡기 전에는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직을 하고 싶어도 다른 직장에 들어갈 것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지금 다니는 직장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더라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잔의 법칙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다른 직장으로 옮겼는데도 일주일 만에 헉소리가 나옵니다. 먼저 직장이 훨씬 나았던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큰일이 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이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직장이 없는 분들에게는 취직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기에 그런 내용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늙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하는 와중에 있었던 것을 그리는데, 열왕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 보면 이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야기들은 생략하고 레위인을 성전봉사자로 조직화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의 마지막 작업으로 종교의 조직화 작업을 하고 떠나는 것으로서 기록한 것입니다.
우선 레위인의 숫자를 자세하게 계수하여 이들을 이십사 반열로 나누어서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조직을 짭니다. 이 과정에서 또 레위인의 명단이 나오게 되는데, 이 본문에서 그렇게 했던 다윗의 의도가 무엇이고 레위인의 조직화에 대해 기록한 에스라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과 에스라가 포로귀환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의 의도가 같은데 모든 선민이 레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선민의 나라가 사는 방법은 레위인의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섬기는 것을 평생의 가업으로 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는 자들입니

다.
장자는 가업을 잇는 장본인들이고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가정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성전에 머물며 섬기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레위인이 아닌 모든 다른 지파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흩어져 살면서 그 가정마다 실질적으로 가업으로 삼아야 하는 일도 성전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일은 곧 그 집안의 가업인데,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이 성전을 섬기는 것은 곧 집안의 가업도 성전을 섬기는 일이 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가업입니다.
강릉에서 꽤 자주 관찰되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일을 하고 자녀들은 장성해서 나름대로 다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해서 대구머리 찜, 막국수, 두부찌개 등을 만들어서 파는데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나기 시작했고 20~30년 지나다보니 아빠가 벌어오는 돈과 자녀들이 직장에서 애써서 벌어오는 돈을 다 합쳐도 엄마가 버는 돈에 반에 반도 안 됩니다.
식당에 다니다 보니 어느 날 카운터에 아저씨가 앉아 있는데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두어 달 뒤에 가보니 이제는 행주를 들고 식탁을 닦고 손님이 오시면 친절하게 인사하고 이제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직을 한 것입니다. 조금 있다 보니 아들딸이 다 옵니다.
남편과 자녀들이 합세해서 기업처럼 번창한 식당들이 꽤 많고 벤츠600을 타고 다닙니다. 아빠의 월급으로는 턱도 없었는데 가업이 됐습니다. 가업이 되려니 아빠가 이직을 해야 되고 자녀들도 이직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며느리가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가업이 됩니다.

오늘 레위인들의 계수를 통해서 다윗이 유언처럼 남기고 싶은 권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의 가업이 성전 섬김인데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면서 농사짓고 고기 잡고 하는 일이 가지각색인데 어떻게 레위인처럼 성전을 섬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든 가정의 장자를 대표해서 성전에 와 있기 때문에 의미상 가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의 진짜 직업은 고기 잡으러 바다에 가 있으면서 성전을 섬기는 것이고, 농사지으면서 성전을 섬기고, 대장장이 하면서 성전을 섬깁니다. 자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중에 성전 섬기기를 하는데 성전 섬기기가 모든 가정의 가업입니다.
다윗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레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이 레위인으로 성전을 섬길 수 있고 모든 가정의 가업이 성전 섬김이 되어야, 선민의 나라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과 안정가운데 행복과 결실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삶을 진행해 갈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에스라에게 그대로 심겨져서 포로귀환자들에게 열왕기에서처럼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로 왕위가 이양되는 과정에서의 모든 우여곡절을 다 제쳐놓고 레위인을 조직화한 것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레위인과는 달리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가지각색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성전을 섬기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예를 들어 봅니다. 60여 년간 포로생활을 하면서 바벨론 왕들의 조언자의 역할을 하고 심지어 바벨론에서 세 번째 치리자의 자리에 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메대 나라에 점령을 당했을 때는 다리오 왕 때에 총리까지 됩니다. 그런데 그 총리 시절에 간신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경배하는 자는 사자 굴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조서를 왕을 충동질해서 공표하게 합니다.
단6: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지로 오래전에 바벨론의 느브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 왕국 유다가 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다 사람으로 다니엘처럼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치고 성전의 구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전의 지성소에 법궤와 법궤 안의 돌판 그리고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로 두 그룹이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 거룩한 곳, 그리고 분향단이 지성소의 휘장 바깥에 있고 떡 상과 등대가 있고 번제단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성전의 구성을 그대로 마음에 대입을 합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는 지금 성전의 법궤 안에 말씀의 돌판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가를 봅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의미하는바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지, 떡 상이 뜻하는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등대가 뜻하는바 하나님으로 완전히 기쁜 상태에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을 따라서 하나님의 판단대로만 가고 있는지를 보는데 이것이 성전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전은 파괴되어서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은 성전을 기억하고 성전의 구성대로 내 마음을 대입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감이 작동하고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는 다른 존재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구성에 마음을 대입해 보면서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번제단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마음이 지성소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것인데 이것이 성전을 섬기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 갔든지 본국에 있든지 다니엘의 직업은 성전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총리 직무는 본질적인 직업이 아닙니다. 다리오 왕의 총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성전을 섬기는 것이 사명이고 직업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전을 섬기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직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느브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벨사살 왕 때에는 잔치 때에 느닷없이 나타난 손가락이 벽에 쓴 글씨를 다니엘이 해석했는데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데 영 마음에 들지 않고 보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이 망가져 버리고 말 것 같은데, 이럴 때에 이직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인데 직장을 바꾸는 이직을 하지 말고 그 직장에서 성전 섬기기로 사명적 직업 활동을 바꿉니다. 그 직장 안에서 성전을 섬기는 것이고 성전을 섬기는 것은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은 이유는 이 직장에서 돈벌이를 해야 먹고 산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이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직장을 바꾸지 말고 이직을 하는데 직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직장 안에서 성전 섬기기를 직업으로 삼습니다.
사장님께 잘 보이고 승진하고 월급 많이 받는 것이 이 직장에 나오는 목표였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다른 직장으로 옮긴다고 보장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전 섬기기를 직업으로 삼는 것입니다.

직업은 눈이오나 비가 오나 수행해 나가야 하는 활동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직장에서 성전 섬기기를 직업으로 삼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바꾸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이직을 하는 것인데 직업의 성격을 바꾸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세 번 정도 시간을 내서 다니엘처럼 내 마음을 성전의 구성에 대입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결국 십자가에서 완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얻지 못하거나 그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마음이 우울하고 기분이 나쁜 것이므로 번제단에 가서 죽습니다.
예술인이면 예술계에서 십자가 생활화하는 것이 직업입니다. 예술계는 파견장소로 출장 나가는 곳입니다. 정치인이면 정치계에서 십자가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정치계는 파견장소입니다.
그러면 직장이 없는 사람은 생계를 위한 직장을 고심하기 전에 먼저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 생활화의 직업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돈을 버는 직장이 있어야 한다고 괴로워하면 직장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담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직장의 문제를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지성소에 다른 게 들어와 있어서 더럽혀진 것이므로 번제단에서 죽는 것인데 이게 직업입니다.
직장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장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앞서고 있는

나를 죽이는 것이 내 직업입니다. 이것을 직업삼아 활동하다 보면 행복과 생계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십자가 생활화가 내 직업입니다. 삼성에 다니는 직장인도 직업은 삼성에서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도 직업은 중소기업 안에서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것입니다. 또 주부는 가정에서 십자가 생활화를 합니다. 학교에 간 자녀들은 학교에서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데 가업이 돼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직장에서의 활동을 직업으로 생각했던 모든 생각에서 이직을 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해 나갈 때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유방임주의를 표방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 돈이 들어오면 돈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물 흐르듯이 하면 되는데 돈을 빼내고 돈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온 나를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대로 십자가로 갑니다. 돈이 들어와 있는 내가 이미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죽은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권력이 들어왔다면 개인의 욕망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권력이 들어와 있는 나를 그대로 안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권력을 안고 있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발견합니다. 내 마음에 자식들이 들어와 있다면 자식이 들어와 있는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발견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마치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할복하듯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오감을 열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체질 자체가 끊임없이 마음의 지성소에 다른 것을 끌어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과 분리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셨는데 이유 없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담은 내가 죽어있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레위인의 직무가 나오는데 중심이 아침과 저녁에 찬양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번제단에서 상번제를 드립니다. 어린양이 죽어 갑니다. 찬양하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오직 생각은 십자가, 십자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속에서라도 끊임없이 십자가를 노래하면서 물 흐르듯이 내가 죽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직업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물 흐르듯이 되어지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어떤 파견 장소에서라도 우리에게 허락된 진짜 직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생계와 행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기가 막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